[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돈나
- 종교
- 사랑
- 광복(조국)

가

[A]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疲困)하여 돌아가려는도다. 아침이 오는 것 (밝아지고 있음)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마돈나」 오려무나. 네 집에서 **눈으로 유전(遺傳)하던 진주(眞珠)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 현실적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도 모르게 숨는 두 별이어라.
화자와 마돈나

[B]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첫닭이 울고— 뭇 개가 짖도다. 나의 아씨여. 너도 듣느냐. 이상 공간으로 가지 못하는 슬픔
아침 말을 건네는 방식
「마돈나」 지난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 둔 침실(寢室)로 가자. 침실로!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국— 오, 너의 것이냐?
아침이 오는 시간 환청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맘의 촛불을 봐라.
양(羊)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窒息)이 되어 얕푸른 연기로 꺼지려는도다. 내 마음이 약하다는 것

[C]
「마돈나」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리메*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곳 가까이 오도다.
아, 행여나 누가 볼는지— 가슴이 뛰누나.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마돈나」 날이 새련다. 빨리 오려무나. 사원(寺院)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네 손이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 밤과 같이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 이상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열 이도 없으니!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 나의 아씨여. 네가 오느냐?
+ 불안함
「마돈나」 가엾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를 내 귀가 들음은—
내 몸에 피란 피—가슴의 샘이 말라 버린 듯 마음과 목이 타려는도다.
애타게 기다리는 것

[D]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끄을려가지 말고!
설의법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내 침실이 **부활(復活)의 동굴(洞窟)**임을 네야 알련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얽는 꿈.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歲月)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순수함

[E]
「마돈나」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둔 밤물결도 잦아지려는도다.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네가 와야지.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 이상화, 「나의 침실로」

+ 공간, 이상적 공간, 지향적 공간

*목거지: '모꼬지'의 방언. 여러 사람이 놀이나 잔치 등에 모이는 일.
*수밀도: 살과 물이 많고 맛이 단 복숭아.
*그리메: 그림자.

나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말을 건네는 방식**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이상의 가능성 존재**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함께, 연대**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설의법**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설의법**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이상적 공간**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대구법**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연대를 통한 극복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9001-0061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간, 시선이 2 가지

① 원경과 근경을 대비시켜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② 설의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청유형의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보기>에서 기준은 '이상향' '지향' - 비판x
④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작품의 구조적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
⑤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생동하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내용상의 공통점 확인해보자!!!

(가)와 (나) 모두

부정적 현실에서 이상 세계를 지향한다.

그 과정에서 (가)는 '마돈나' 와 (나)는 '손'을 통해 이상향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두 작품은 '연대' 가 공통점이다.

9001-0062

02 (가)의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먼동'이 트기 전의 시간과 '어딘지도 모르게 숨는 두 별'이 연결됨으로써, 마돈나와의 만남에 대해 조급해하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이 드러나는군.
② [B]: '첫닭'과 '뭇 개'의 청각적 심상과 '내 귀가 듣는 발자국'의 환청을 결합하여, 마돈나와의 만남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③ [C]: 말라 버린 듯한 '가슴의 샘'과 타려는 듯한 '마음과 목'을 결합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만남으로 인해 점차 절망이 심화되고 있는 화자의 마음 상태를 제시하고 있군.
④ [D]: '세월 모르는'과 '아름답고 오랜'을 결합하여, 지향하는 세계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화자의 뒤늦은 깨달음과 한탄을 제시하면서 시상을 전환하고 있군.
⑤ [E]: 흐려지는 '별들의 웃음'과 '어둔 밤물결'을 결합하여, 화자의 다급하고 간절한 심정을 재차 환기하고 있군.

선택지 논리 확인할 것!!!!!!!!!!!!!!!!

3번 문제를 통해 기준은 이상향 추구이다.

선택지 1,2,3 은 이상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급' '안타까움' '절망' 의 정서를 보여준다.
선택지 4에서 지향하는 세계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즉 이것은 이상향 추구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택지 5에서 '다급' '간절' 을 통해 재차 환기한다고 했으므로 여전히 이상향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상의 전환과 선택지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택지 4가 정답이다.

9001-0063

03 (나)의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화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존재이고, ㉡은 ㉠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이다.
② ㉠은 화자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존재이고, ㉡은 ㉠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③ ㉠은 화자가 위로를 전하려는 존재이고, ㉡은 ㉠이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이다.
④ ㉠은 화자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존재이고, ㉡은 ㉠에게 실망감을 갖게 하는 존재이다.
⑤ ㉠은 화자의 자부심을 환기하는 존재이고, ㉡은 ㉠에게 의구심을 환기하게 하는 존재이다.

9001-0064

0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에서는 서로 대비되는 공간의 특성을 함께 제시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특성을 그려 내거나, 화자의 독특한 내면세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가)에서는 어두운 밤의 현실과 대비되는 '침실'을 상징의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인 '침실'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다양한 공간으로 변주되면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물의 욕망을 암시한다. 이 공간을 통해 화자는 현실과 거리를 두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 삶의 활력을 되찾으려 한다. (나)에서는 '하늘 아래'나 '벌판'이 지닌 '뿌리 깊음'을 시적 공간의 특성으로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바라는 세계에 대한 지향을 나타낸다.

① (가)에서 '침실'을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는 다 두고 몸만' 와야 할 곳으로 그려 낸 것에서, '침실'에 대한 지향이 세속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화자의 초월적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군.
② (가)에서 '침실'을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에 있는 공간으로 파악한 것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화자의 단호한 결단을 떠올릴 수 있군.
③ (가)에서 '침실'을 '부활의 동굴'이라고 비유하는 것에서, 마돈나와 함께 밀폐된 공간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재생하고 싶다는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엿볼 수 있군.
④ (나)에서 '하늘 아래'와 '물 고이'는 곳은 고통 속에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서러운 현실에 맞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할 존재들을 떠올리게 하는군.
⑤ (나)에서 '뿌리 깊은 벌판'은 화자가 자신을 구원해 줄 존재와의 만남을 위해 스스로 마련해 놓은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고통과 설움을 이겨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환기하고 있군.

4번 문제 <보기>의 핵심

첫 문장 : 대비되는 공간의 특성을 함께 제시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특성과 내면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나)에서는 공간의 대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논리적이지 않은 문제!!!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삼수갑산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
㉠오고 나니 기험(奇險)타 아하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 아하하
고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 일제 자조적, 비관적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삼수갑산 멀드라 아하 촉도지난(蜀道之難)*이 예로구나 아하하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가 오고 내 못 가네
불귀(不歸)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아하하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내 못 가네
오다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불귀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 김소월, 「삼수갑산(三水甲山) – 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次岸曙先生三水甲山韻)」

* **촉도지난**: 촉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됨.

나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정착하지 못하는 삶, 대구, 의인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대구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툇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정착하는 것이 천치 = 바보 라는 것을 통해, 떠돌아 다니는 것이 본인의 삶임을 수용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 「목계 장터」

9001-0065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색채어의 대비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② (나)는 (가)와 달리 미완결의 문장으로 시상을 종결하며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③ (가)는 영탄적 표현을,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인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9001-0066

02 〈보기〉를 통해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의 화자는 시적 공간의 유폐적 특성을 부각하여 고향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화자가 놓인 삼수갑산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데, 화자는 자조적인 어조를 통해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시적 공간의 개방적 특성을 부각하여 떠돌이가 되어 끊임없이 길 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가 걸어가는 길은 영원한 안주와 정착이 불가능한 화자 자신의 삶을 상징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 순응하면서 달관의 자세로 고달픈 현실을 벗어나려 한다.

① ㉠은 '물'과 '산'의 심상을 결합하여 고향에서 '삼수갑산'에 이르는 길의 물리적 특성을 드러냄으로써, 고향에 갈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암시하고 있군.
② ㉡은 자신을 '삼수갑산'에 가두어 둔 야속한 '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냄으로써, 타향살이를 강요당하는 화자 자신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군. 고향과 이별이 기준!!! 님과의 이별이 기준이 아니다.
③ ㉢은 마지막 행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와의 결합을 통해, 삼수갑산을 벗어날 수 없는 유폐의 공간으로 여기는 화자의 자조적인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④ ㉣은 '뱃길이라 서울 사흘'과 '아흐레 나흘'의 결합으로 목계 장터의 공간적 속성을 암시함으로써, 특정한 공간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군.
⑤ ㉤은 '맵차거든'과 '모질거든'의 감각적 심상을 연결시켜 고달픈 현실을 암시함으로써,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